

지역 매 아 리

김제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김제시는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김제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080-540-3377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배성권 세정과정장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부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축제기간을 알리는 문구를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전국에 지평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직원들에게 책 선물

박성일 완주군수가 추석을 앞두고 신규직원들에게 <명경만리> 책을 깜짝 선물했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5년 이내 신규 직원 위주로 구성된 정책연구모임 '헬린지 100C' 참가 직원 100여명에게 <명경만리>(인플루엔셜)를 선물했다.

박 군수는 직원 메일을 통해 "추석을 맞아 직원들이 마음도 풍요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 한권을 준비했다"며 "공공과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책이다"고 소개했다.

<명경만리>는 KBS 프로그램을 책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급변하는 시대에서 공존과 공생, 공유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책에서 이야기하는 키워드들은 완주군이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셜그릇 정책과도 맞닿아 있어 박 군수가 선택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책 선물을 받게 된 기획감사실 이세빈 주무관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정말 놀랐고, 사무실 책상에 두고 읽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안목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책에는 교육, 일자리, 복지, 지방자치 등 다양한 주제를 소개한다"며 "완주군 역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는 만큼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보은매립장 응급복구 중장기 방안 도출

완주군, 테크노밸리 매립장 백지화 변함없어

완주군은 비봉면 보은매립장의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응급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민과 군의원, 환경·토목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최적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10일 "보은매립장 침출수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곡수와 오염수 분리공사를 완료하고 매립장 상부 균열 메움 등 1차 응급복구를 마무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은 "올해 9월까지 매립장 상단 우수배제 덮개 설치 공사를 끝내고, 자암 소하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 부터 매립장 침출수 저감시설과 차단벽 설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보은매립장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타당성과 설계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도비와 군비 등 50억원을 투자해 생태습지와 침출수 전처리 시설, 차수벽, 교육관 가스포집 등을 설치하면 더 이상의 환경오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보은매립장 안정화 대책은 주민 신뢰를 토대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과 토목 전문가, 주민대표, 군의원 등이 참여하는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각계의 참여 속에 최적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주변지역 환

경오염 모니터링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주민과 의회, 전문가 등 각계의 참여 속에 보은매립장 최적관리 방안을 입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완주군은 또 완주산단 배매산 인근 그린밸리 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도 "공원지역에 일부 불법매립을 확인하고 지난 7월에 고발조치 하고, 8월에 행정조치(원상복구) 통지 한 바 있다"며 "앞으로 시추 등을 통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제2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종전의 방침과 관련해서 "항간에 다시 조성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백지화 방침은 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공무원·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시지부 회원 등 200여명 참석

김제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10일 김제시 공무원 및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시지부(지부장 김영하)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김제시는 10일 공무원 및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시지부 회원 등 200여명이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해 함께 참여하여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를 특별히 살리는 김제사랑상품권 홍보 또한 진행되었다.

이날 김제전통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흥겨운 쇼핑을 위해 아케이드 내에서 김제전통시장 살맛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김제시 관계자는 "김제를 대표하며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통시

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직자와 사 회단체가 앞장서서 전통시장 이용하

기 분위 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완주군이 추석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10일 완주군은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귀성객과 성묘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정보지원, 불편민원 해소,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한 상황조치를 취한다.

또한 터미널 관리상태,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차량 불법 주정차 계도 등의 점검이 이뤄진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고향 방문을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평선축제로 목장나들이 가요

송아지 우유주기, 우유비누 만들기 등 무료 체험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축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목장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목장나들이 행사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및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 전북우유회 후원으로 진행한다.

목장나들이 행사는 목장을 축제장으로 옮겨와 관광객들에게 우유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에게는 우유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고 어른들에게는 우유의 효능 및 활용법을 소개하여 우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열리는 가족 참여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목장체험과 우유 관련 체험, 부대 행사 등으로 목장체험 행사는 송아지 우유 주기, 젓소 건조 주기, 손 착유 체험 등으로 송아지와 젓소를 직접 보고 만지며 우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우유 체험행사는 우유비누 만들기, 우유탄탄면 만들기, 우유빙수&라떼 만들기 등 요리교실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는 디지털 밀크 터치 스크린, 어린이 극장

으로 구성돼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이승호 위원장은 "어린이들에게 우유의 생산과정을 이해시키고, 완전식품으로서 우유의 효능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우유를 친근하게 느끼고, 매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행사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목장나들이 행사를 준비해 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 감사한다. 우유체험행사가 지평선축제를 찾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글로벌축제,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주 행사장인 벽골지에서 오감을 만족하는 110여가지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태풍 및 호우 취약지 방역 강화

비상 방역반 편성 1120개소 및 유충서식지 소독

김제시보건소는 태풍 '링링'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장마와 태풍 등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하여 모기 유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 방역반을 편성하고 주말에도 빈집, 쓰레기장, 관광지, 공중화장실 등 방역취약지역 1120개소 및 유충서식지에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보건소 및 읍면동에서는 해충다량 발생 신고시 즉각 대응을 위하여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거 밀집지역, 다수이용시설, 공원 등을 중심으로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위생해충피해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모기 유충은 페타이어, 빈 용기, 배수구 등 고인물이 있는 곳에 산란해 활동하는 특성이 있어 비운 뒤에는



집 주변 고인 물 제거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고 주변 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은 "장마철을 전후해 김제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장마철 방역소독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하찮은 우유팩 하나에 고인물도 모기 번식에 최적지가 되며 해충서식지를 없애는 것이 최고의 방역이므로 내 집 주변 고인 물 없애기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